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재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3년도 기도제목

- 1)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6~8)
- 2) 천국을 침노하자 (마태복음 11:12)
- 3) 마음-성전 (로마서 13:10)
- 4) 재창조의 권능 100% (요한복음 14:11~12)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석(3)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황금란

협동 목사/ 문신현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교육 전도사/ 성기용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형업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한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세바스찬 임팩트 펠고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고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마크 바잘레프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핀: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저릭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지아
중 동: 보나 시두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소프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규동 이동립 최종태 추오동 이시현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박영준 정안권 김영기 박현재 이수형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장영규 이익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보완 홍명일 김준호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현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웅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락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익 정영태 정용필

명예 장로/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호 김영남 서성이 문경진 박진무 이주필 박경춘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환 들 성가대: 서승현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 | | |
|--------|-------------------------------------|--------|
| 개회송영 | | 주 악 |
| 기 원 | | 사 회 자 |
| * 개회찬송 | 34장 1절 | 다 같 이 |
| * 성시교독 | 47번 | 다 같 이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
| 자복기도 | | 다 같 이 |
| 찬 송 | 340장 | 다 같 이 |
| 기 도 | | 김진홍 장로 |
| 성경봉독 | 누가복음 16:22~26 | 사 회 자 |
| 찬 양 | 주의 사랑 안에서/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 |
| 설 교 | 지옥(6) | 당회장님 |
| 기 도 | | 다 같 이 |
| 환자기도 | 영상 | 당회장님 |
| 찬 송 | 만민 찬양 44장 | 다 같 이 |
| 헌 금 | | 다 같 이 |
| 광 고 | | 사 회 자 |
| 봉헌기도 | | 사 회 자 |
| 새교우환영 | | 사 회 자 |
| * 축 도 | 영상 | 당회장님 |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김영석 목사

| | |
|------|---|
| 대표기도 | 장정미 전도사 |
| 성경봉독 | 옴기 15:26~35/ 사회자 |
| 찬양 | 사랑해요 주님/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
| 특송 | 심찬미 자매 |
| 설교 | 옴기 강해(38)-옴을 향한 엘리바스의 저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이풍근 목사

| | |
|------|---------------------|
| 대표기도 | 권영남 전도사 |
| 성경봉독 | 옴기 1:21~22/ 사회자 |
| 찬양 | 금빛성가대 |
| 설교 | 옴기 강해를 들으면서/ 문태규 목사 |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김상휘 목사

| | |
|------|--------------------|
| 대표기도 | 이영인 전도사 |
| 성경봉독 | 요한계시록 20:6~10/ 사회자 |
| 찬양 |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
| 설교 | 요한계시록 강해(68)/ 당회장님 |

2-9회 14차 작정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3월 6일(월) ~ 3월 26일(주일)
주제/ 2023년 7가지 기도제목, 은사집회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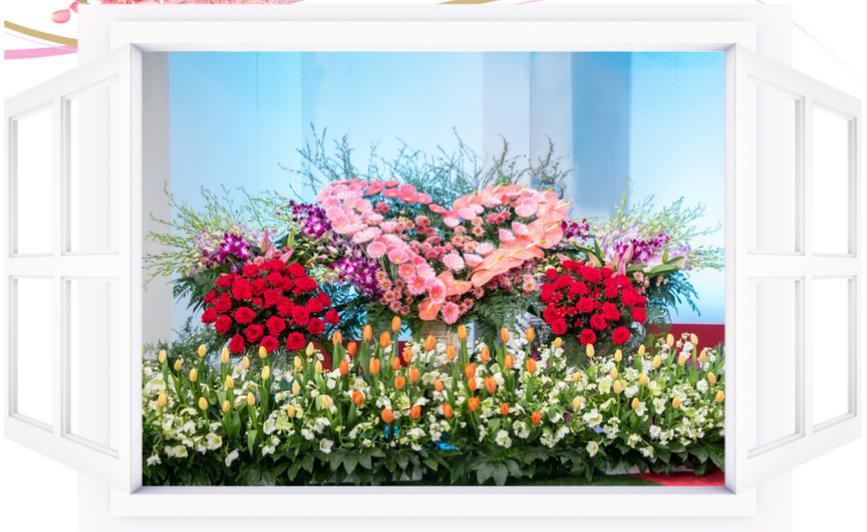
새벽 예배

인도/ 윤영자 전도사
시간/ 매일 오전 5시
(토요일은 제외)
장소/ 3층 성전

다음주 예배 위원

| 예배 | 사회 | 대표기도 |
|---------|--------|---------|
| 주일 대예배 | 이미경 목사 | 조수열 목사 |
| 주일 저녁예배 | 박광현 목사 | 최영신 전도사 |
| 수요 예배 | 노영진 목사 | 황미경 전도사 |
| 금요 철야예배 | 주현철 목사 | 박형렬 목사 |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지옥 (5)

본 문 : 디모데전서 2:4

지난 시간에는 양심 심판관 어린아이들의 구원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 늘은 아담과 하와, 가인의 구원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 이들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셨습니다(창 1:31).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생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요(창 1:27~28).

하나님께 특별한 첫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처럼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오히려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1. 아담과 하와의 구원 여부

1)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천국에 들이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던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리고 눈물, 슬픔, 고통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결국 사망에 이를 육의 사람이 되었지요. 땅과 만물도 다 함께 저주받아 이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땀 흘려 일해야지만 소산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 또한 죄악과 질병, 재앙과 사망이 있는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지 못했으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에 비하면 그래도 그 양심이 선하고 깨끗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원죄, 곧 마음의 죄성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짙어졌지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온갖 죄를 범하니 그 마음은 점점 더 죄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사람들에 비하면 처음 이 땅에 내려올 당시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이 선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전에는 에덴동산에서 편히 거하며 풍성하게 맺혀 있는 과실을 따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수고가 더해졌지요. 죄로 인한 눈물과 슬픔을 알게 되고 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던 지난 날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에덴동산에 살 때는 자신들이 항상 누리는 축복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행복한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살아본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예전에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날로 새롭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셨고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는 천국에 들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2) 낙원밖에 갈 수 없었던 이유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저버린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친히 기르시고 가르치시며 사랑을 주셨지요. 만물 가운데 큰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으니 그저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낙원밖에 갈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인간 경작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지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공의에 따라 계수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낙원 이상의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하거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가인의 구원 여부

1)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지요. 이들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가인은 농사지어 거둔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죄를 사할 수 있는 피

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제물로 제사해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주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영계의 법칙을 알았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긴 세월 동안 동행했고, 이 땅으로 내려온 후에도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필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아벨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피의 제사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땅의 소산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까닭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적인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히 11:4).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제사법을 변질시켰습니다. 중심으로 영적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적당히 형식을 차렸을 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설명하면, 주일에 교회 와서 앉아서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교회에 나왔으니 주일을 지켰다.' 하고 안주하며 탄생각하거나 졸음으로 빠져버리면, 이는 형식만 차리고 정작 중요한 마음과 정성은 드리지 않았기에 가인처럼 육적인 제사를 지낸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2) 가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자 자기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감정을 품고 있다가 결국 아벨을 쳐 죽이고 말지요.

인간 경작이 시작된 지, 한 세대 만에 벌써 미움과 시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육신의 일들이 장성하여 살인이라는 죄, 곧 육체의 일로까지 나타났지요. 가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끔찍한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품고 있다가 계획적으로 자기 혈육, 곧 친동생인 아벨을 살해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악의 속성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악을 한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와 마음을 더럽히는 지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나 악이라도 '이 정도쯤이야.' 하며 허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물론 가인의 죄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가인의 양심 또한 오늘날에 비하면 깨끗한 상태였지요. 가인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원죄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징계를 통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범죄의 보응으로 땅에서 저주받아 유리하는 자, 곧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아 지면에서 쫓겨나게 된 가인은 자신의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며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셨지요.

이 표로 인해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었지만, 가인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표를 보면서 두고두고 자신의 범죄를 후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로 인하여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는 이르렀으니 축복이지요. 가인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3)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간 이유

선한 세대에 살면서 살인을 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은 좋은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인은 자신과 한 핏줄을 받아 난 자기 형제를 죽이는 악을 행했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가인이었기에 회개했다고 해도 공의에 따라 낙원 이상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인은 회개한다고는 했지만, 죄에 대한 징벌이 두려워서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회개한 것은 아니었지요. 이후에라도 자신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켰다면 좀 더 좋은 결말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더 좋은 처소와 상급을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만한 중심은 아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큰 권세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의 낙원, 곧 가장 낮은 처소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과연 이들은 에덴동산의 삶과 낙원의 삶 중 어느 삶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까요?

바로, 이 땅에서 경작을 통해 죄와 사망의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한 후 받은 낙원의 삶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경작’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오히려 더 귀한 선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덴동산에 살던 때의 아담과 하와는 아직 사망의 고통을 알지 못하므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원수 마귀 사단의 종 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 줄을 압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지킴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줄도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으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낳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경작의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37) -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3)

본 문 : 욥기 15:17-25

지난 시간에 이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상담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진들의 말을 인용하여 욥을 깨우쳐 주려는 엘리바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욥 15:17-19)

엘리바스는 그동안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 욥을 설득해 보았지만 욥이 귀담아 듣지 않자 이제는 선진들의 말을 인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정하여 주신 땅이므로 이방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게 가르쳤습니다(요엘 3:17). 또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 거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신 7:16).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 거한다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그들의 잘못된 관습과 악행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으며 그로 인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선지자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방 나라들과 싸워 대승하였습니다.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던 모압의 왕 발락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며 반대로 축복의 말씀만 주셨지요.

이에 발람은 피를 내어 이스라엘에 저주가 임할 일을 행하게 합니다. 바로 모압인들의 모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 앞에 절하였고, 이로 인해 열병이 임해서 2만 4천 명이나 죽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막상 이방인들과 만나 그들의 문화를 접하니 이내 변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 안에 살 때는 형통한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연합하며 우상을 섬길 때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방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짝하여 비진리 속에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는 사단의 역사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드는 것은 욥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욥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 시험 환란이 온 것이라고 혹독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욥을 악인이요 강포자라 판단하는 엘리바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헛수는 작정 되었으므로”(욥 15:20)

강포자란 ‘우악스럽고 사나운 자’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들처럼, 욥도 그러한 악인이요 강포자에 속한다고 비유하여 말한 것이지요. 즉 욥은 악인이요 강포자 중 한 명이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미 작정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시 1:6),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잠 24:19-20) 말씀했지요. 반드시 선악 간에 심판이 있고, 악인은 잠시 형통해 보어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욥 15:21-22)

그동안 욥의 귀에는 재산이 다 무너지는 소리,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리, 사육하던 짐승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업신여기는 말을 퍼부었고, 일가친척도 멀리했습니다. 더구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신음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흘러나왔고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욥은 계속하여 놀라운 소리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욥이 얼마나 형통함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시험 환란이 닥치니 형통함은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욥은 죽음 직전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이처럼 엄청난 시험 환란 속에 빠진 욥은 다시 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칼날의 기다림이 되었다는 것은, 욥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천

대와 조롱을 받으며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칼날의 기다림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어두운 곳에서 나오기를 바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악인이요 강포자이기에 형통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고, 이제는 칼날의 기다림이 되었으니 시험 환란에서 구원받을 것을 바라지도 말아라. 악이나 강포자는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찌르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의인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로부터 악인이요 강포자라고 혹독하게 매도하는 말을 들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구나 성령 시대가 아닌 당시에,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친구가 연달아 공격을 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욥의 친구들의 잘못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올바른 상담을 하려면 성령의 주관을 받아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욥 15:23-25)

욥은 부유한 사람이었으나 저주받아서 망해 버렸고, 결국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형편에 처했으니 이제는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지 못하여 방황하다가 결국 “나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하며 스스로 앞날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혹독하고도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감정이 상하고 악에 받치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욥 9:34-35). 욥의 이러한 상황을 엘리바스는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긴다”라고 했는데, 만일 왕이 수년 동안 철저히 싸움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수월하게 상대를 쳐서 이기겠습니까? 이는 결국 욥이 이길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욥은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룰 때 주먹이나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하듯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대적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전능자를 배반했고, 그러니 지금과 같은 환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분이지만 '자기가 없으셨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만 하셨습니다(고후 1:19).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말은 욥에 대한 판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만 가지고 욥을 책잡아서 '넌 악인이다, 강포자다, 교만하다.'라고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욥에 대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이 자신을 이해시키지도 못했고, 또 욥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론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너무 엉뚱한 말을 하니 욥은 결국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욥이 이처럼 친구들을 무시할수록 친구들은 더욱 욥을 오해하며, 판단에 판단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감정의 벽도 점점 두꺼워져 갈 수밖에 없지요.

전도서 5:2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므로, 내 편에서 상대의 마음을 분명히 읽지 못할 때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나 일꾼이 양떼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을 보고 상대를 깨우쳐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한다면, 상대는 더욱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다 해도 그것으로 상대에게 변화의 역사를 줄 수 없습니다(고전 4:20).

상대에게 바른길을 깨우쳐 주고 회개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서 상담해 주어야 합니다(고전 2:10). 우리가 마음을 진리로 일구면 각 상황에 맞는 답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께서 알려 주실 수 있고,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답을 주는 것도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을 진리로 일구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과 최고의 기도 모델, 예수님

읽을 말씀 / 누가복음 22:39~44

외울 말씀 / 누가복음 22:44

참고 말씀 / 예레미야 33:3 ; 데살로니가전서 5:17

교육 내용 / 최고의 기도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을 드림으로 응답과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한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학교나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와 조곤조곤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면 자녀로서 당당하게 요구하며 부모에게 스스럼없이 사랑의 표현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 주셨지요. 기도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응답의 열쇠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요령은 무엇일까요?

1.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고백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주기도문 도입 부분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000에게”라고 쓰는 것과 같지요.

그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가 선하신 뜻 가운데 이뤄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 후에 자신과 이웃을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였지요. 이때 비로소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며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광 돌리지요. 이처럼 주기도문에는 기도하는 요령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2. 최고의 기도 모델,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며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 겹세 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기도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며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1)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면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듯이 우리가 습관을 좇아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지속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지요.

만일 습관을 좇아 기도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마음이 곤고해지며 자칫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살전 5:17).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올 시험을 물리쳐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시험이 온다 해도 영적 힘이 축적되어 있으면 사단에 미혹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매우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자기 전에 하루를 지켜 주심에 감사기도를 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는지요?

2)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나윗사람 앞에서 무엇을 구할 때 바른 몸가짐으로 공손히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결코 흐트러진 자세로 구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행 20:36)이나 스테반 집사(행 7:60) 등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능력을 신뢰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무릎을 꿇기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

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5분, 10분 시간을 늘려 가다 보면 나중에는 한 시간, 두 시간도 거뜰히 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구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현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면 실컷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업이 번창하지 않습니까? 신속히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욕심과 사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수 없지요. 바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선한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결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4)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당시 겻세마네 동산은 기온이 낮아 땀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땀방울이 땀방울같이 되었다는 데에서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잡념이나 피곤, 졸음이 틈타지 않고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지요. 그러니 응답은 물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스러운 일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핍박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것이 마치 경건하고 거룩한 것인 양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밤늦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용히 할 때도 있지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응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적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2.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적어 보세요.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스테반 집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의 구제 사역을 맡은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 뽑혔으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스테반이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들은 마음에 찔려 돌로 쳐 그를 죽였다. 스테반은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영혼이 떠났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 | | |
|------|-----|--|
| 1교구장 | 최성숙 |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
| 2교구장 | 권영남 |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
| 3교구장 | 장정미 |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
| 4교구장 | 최영신 |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
| 5교구장 | 이석규 | 영등포구 |
| 6교구장 | 류순주 |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 | | |
|-------|-----|--|
| 7교구장 | 이성숙 | 금천구(가산동) |
| 8교구장 | 김영순 |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
| 9교구장 | 최영자 |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
| 10교구장 | 김영석 |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
| 11교구장 | 조은영 |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
| 12교구장 | 임학영 |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
| 13교구장 | 정진영 | 관악구 |
| 14교구장 | 서덕분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 | | |
|-------|-----|---|
| 15교구장 | 문신현 |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 16교구장 | 박금미 |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
| 17교구장 | 차경숙 |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
| 18교구장 | 황미경 | 안산시, 시흥시 |
| 19교구장 | 박광현 | 부천시 |
| 20교구장 | 노영진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 21교구장 | 이풍근 | 인천시 |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 | | |
|--------|-----|-----------------------|
| 중국1교구장 | 정규원 | 중국동포 구로구 |
| 중국2교구장 | 오인숙 |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
| 중국3교구장 | 윤영자 | 중국인 |
| 해외교구장 | 문신현 |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권능」이 보스니아어와 불가리아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의 저서 「지혜」가 오디오북으로 발간되어 교보문고와 네이버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한국어(988호), 영어(738호), 중국어(612호), 스페인어(299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권능의 무안단물 2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오늘 오후 3시 무안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 ※ 강사: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 ※ 축하공연: 예능위원회
- 3월 은사집회가 3월 24일 금요철야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접수는 3월 6일(월)~12일(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7가지 기도제목, 은사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가 3월 6일(월)~26일(주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준비찬양은 오후 8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 교회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발간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기획실과 교회 안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은 활용바랍니다.
- 서울 지방회 주최 2023년 전도사, 장로 고시가 3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신학교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교회 소식**

광주만민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예배 및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식/

3월 12일(주일) 오후 3시 광주만민교회

※ 강사: 강승표 목사 ※ 명예신학박사 학위 대상자: 박형렬 목사, 문태규 목사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양완숙 집사(3가나안)(꽃꽂이 봉사: 예배국 꽃꽂이부, 시설관리국)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 일 정 | | 3층 성전 | 사택 예배실 |
|--------|------|------------------------|------------------------|
| 3월 5일 | 대예배 | 1대대교구 |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
| | 저녁예배 | 7~10 교구 | 중국대교구 |
| 3월 12일 | 대예배 | 7~10 교구 | 1대대교구 |
| | 저녁예배 | 중국대교구 |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
| 3월 19일 | 대예배 | 중국대교구 | 7~10 교구 |
| | 저녁예배 |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 1대대교구 |
| 3월 26일 | 대예배 |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 중국대교구 |
| | 저녁예배 | 1대대교구 | 7~10 교구 |

| 지성전 | 주 소 | 담당/연락처 |
|-----|-----------------------------------|--------------------------|
| 강 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
| 검 단 |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
| 구 리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
| 부 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
| 북 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
| 분 당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
| 수 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 노영진 목사 010-3330-3172 |
| 안 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
| 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
| 이 천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
| 인 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
| 일 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4층 |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3/5 일

- 00:00 - '3차 영혼육 6' 이재록 목사
- 05:00 - '욥기 강해 35' 이수진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72' 이재록 목사
- 18:30 - '선한 자녀' 이미영 목사

3/6 월

- 01:00 - '성령과 불세례'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73'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59' 이재록 목사
- 13: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9' 이수진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6' 이재록 목사
- 19:00 - '우리 삶의 등불 94' 이재록 목사

3/7 화

- 01:00 - '죽어지는 말일이 되자' 이수진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60' 이재록 목사
- 10:20 - '십자가의 도 16'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23' 이재록 목사
- 14:00 - '3차 영혼육 7'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74' 이재록 목사
- 18:00 - '욥기 강해 36'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37

3/8 수

- 00:00 - '3차 영혼육 9' 이재록 목사
- 01:00 - '지옥 5'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66'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10:20 - '십자가의 도 17' 이재록 목사
- 13:00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8'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75'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80' 이재록 목사

3/9 목

- 01:00 - '욥기 강해 37'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76'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62' 이재록 목사
- 10:20 - '십자가의 도 18'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25' 이재록 목사
- 13:00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2'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9' 이재록 목사
- 19:20 - '욥기 강해 17' 이수진 목사

3/10 금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63, 64' 이재록 목사
- 13:00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3' 이재록 목사
- 14:00 - '3차 영혼육 10'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77'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33
- 20:40 - 뉴욕 연합대성회 1

3/11 토

- 07:05 - '창세기 강해 78' 이재록 목사
- 10:00 - '참된 가치'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27'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77' 이재록 목사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824-7107, 1577-2073 / webmaster@gcntv.org

※ KT GENIE TV 882번 및 유튜브 GCN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 41번(영어), 42번(영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인터넷 및 인터넷TV를 통해서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아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Mar. 5(Sun.)

(Exodus 20:15) You shall not steal.

- Mar. 6(Mon.)

(1 Samuel 12:23) Moreover,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ceasing to pray for you; but I will instruct you in the good and right way.

- Mar. 7(Tue.)

(Psalms 1:1) How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s, Nor sit in the seat of scoffers!

- Mar. 8(Wed.)

(Psalms 1:2)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 Mar. 9(Thu.)

(Psalm 119:103)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Yes,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 Mar. 10(Fri.)

(Isaiah 1:19) If you consent and obey, You will eat the best of the land;

- Mar. 11(Sat.)

(Matthew 10:1) Jesus summoned His twelve disciples and gave them authority over unclean spirits, to cast them out, and to heal every kind of disease and every kind of sickness.

3월 5일(주일)

(출 20:15)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3월 6일(월)

(삼상 12: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3월 7일(화)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월 8일(수)

(시 1: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월 9일(목)

(시 119: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3월 10일(금)

(사 1: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3월 11일(토)

(마 10:1)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요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람이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에게 보내라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성경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사랑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여와/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다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저자의 눈물이 담긴 책!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의 침착한 모습을
현장 생중계하듯 보여주는 책

지옥의 침상을 알 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23. 3. 1. (수) ~ 3. 31. (금)

우림북과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URIM BOOKS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 페이스북: facebook.com/UrImBooksStore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여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중(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오

하나님의 법도/ 심계편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신서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일 대예배 | 오전 11:30 | 각 성전 |
| 주일 저녁 예배 | 오후 3:00 | 각 성전 |
|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 오후 9:00 | 각 성전 |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11:00 | 각 성전 |
|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7:00 | 각 성전 |
| 새벽예배 | 매 일 오전 5:00 | 3층 성전 |
| 화요찬양예배/ 학생, 청년, 가나안 | 화요일 오후 7:4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 3층 성전 |
|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 대예배/ 오전 11:30 아동 온라인 공과[GCN]/ 오후 1:00 | |

※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